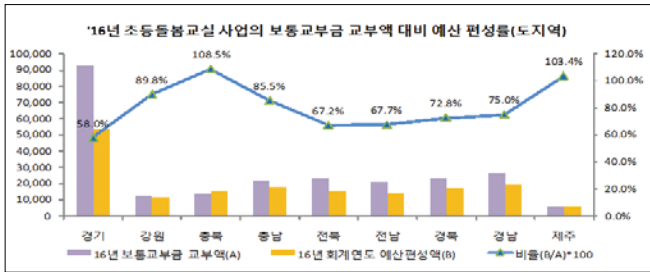


# 전북 초등돌봄교실 예산 전국 최하위권

### 올해 기준액 229억원 중 154억 편성에 그쳐 전국 도지역 평균 80.8% 비해 13.6% 낮아

전북지역 초등돌봄교실 예산 편성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도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교부된 금액보다 시·도교육청 예산이 대폭 감소된 상태다. 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방과 후부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 예산을 전년보다 11.0%(408억원) 늘린 3,922억원을 지난 3월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했다. 지난해 교실 당 2,50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500만원 늘린 규모다. 하지만 올해 교부한 금액보다 시·도교육청 예산이 대폭 감소된 상태로 나타났다.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북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보통교부금 대비 예산편성률은 67.2%(로 전년 78.7%보다 11.5%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기준액 229억5,500만원 중에서 154억1,500만원을 편성할 것이다. 도지역 평균 예산편성률 80.8%에 비해 13.6% 낮은 수치다. 특히 전국 9개 도지역중에서는 경기(58.0%)에 이어 최 하위권을 기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증액 편성한 취지를 살려 편성률이 저조한 경기와 전북, 전남 등의 시·도교육청은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군산대,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최종 선정

군산대학교가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하는 '2016년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입전형, 입학사정관 확충 등 고교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입전형을 실시하여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학 입학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한 60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 중 군산대는 신규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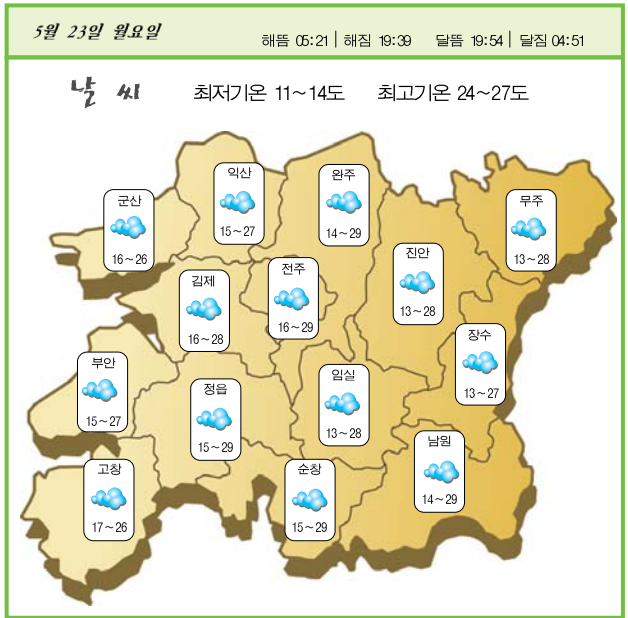
군산대는 향후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고교 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정신장애인 신명이 축제서 표창

지난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118회 전라북도 정신장애인 신명이 축제 행사에 송하진도지사가 표창을 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 전북대 논문 질적수준 평가 2년 연속 종합대학 6위

전북대학교 논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2016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의 상위 1% 논문 인용 비율에서 전북대가 2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6위에 올랐다.

이러 물리학 분야에서는 국내 종합대학 Top5에 들었다.

또한 인용 횟수 세계 상위 10% 이내 논문 비율 부문에서도 국내 종합대학 10위, 국립대 1위에 오르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이덴 랭킹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과학기술연구원(CWTS)가 세계 840여 대학의 과학기술 영향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이 발표한 논문의 질적 수준

이 높다는 의미다.

설문조사 방식 등 주관적인 평가 요소들을 배제하고 2011~2014년까지 블스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인용횟수라는 객관적 지표만을 활용해 학문 분야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비율을 평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서울 소재 주요 상위권 대학들을 대부분 제쳤고 경제 규모가 2~3배에 이르는 타 지역 거점 국립대에도 모두 앞서며 연구의 질적 수준이 국내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특히 전북대는 5개 영역의 학문 분야 평가 중 물리학 및 공학 분야에서 국내 Top10에 랭크되며 전체 순위를 이끌었다.

/고민형 기자

## 전주시, 전주사고 현판식·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행사

### 포쇄재현 연간 1회에서 3회로 확대 키로

전주사고의 이름을 붙이는 '실록각 현판식'과 실록 보존을 위해 비탈에 달리는 '조선왕조실록 포쇄(曝曬)' 재현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21일 전주사고 실록각 현판식과 조선시대 실록을 비탈에 달려 손상을 막기 위한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를 한우마을과 경기전 내 전주사고에서 개최했다.

올해부터 조선시대 기록문화 전통성을 확보하고 전통문화 콘텐츠로 육성

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를 기존 연간 1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중앙에서 파견된 포쇄사관(실록 포쇄를 총괄하는 관원)의 행렬과 현판식 및 기념식, 실록 포쇄 재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선왕조실록 포쇄는 사관일행이 실록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조선왕조실록을 꺼내 달리는 작업이다.

시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재현행사

에서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더하기 위해 포쇄 전 과정에 전문가의 설명과 포쇄 관련 창작 판소리도 가미했다.

김병수 전주시 전통문화과장은 이날 "하드웨어인 전주사고와 소프트웨어인 조선왕조실록 포쇄는 전주가 기록문화도시임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이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시민과 관광객이 전주의 문화적 특질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 포쇄 행사는 박정양(朴廷陽, 1841~1904)이 지난 1871

년(고종 8년)에 별검춘추(別檢春秋) 사관 역임자 중 청요좌에 있는 자가 운에서 특별히 선임하는 직)로 무주의 적상산사고와 봉화의 태백산사고 포쇄를 수행하면서 기록한 한글 가사체 일기인 '박학사포쇄일기'를 토대로 재구성됐다.

'박학사포쇄일기'에는 포쇄사관 선임, 사관일행 구성, 포쇄인원 및 장소, 소요물품,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돼 있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고증을 거쳐 행사계획 및 진행방법 등을 수립했다.

/김영재 기자

## 전북교육청, 도내 51개 일반고 학생부 전형 컨설팅

전북도교육청이 대입 학생부전형 컨설팅을 위해 도내 일반고를 찾아간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8명(2인1조)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7월까지 도내 일반고 51개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과정 및 학생부 컨설팅을 진행한다.

대학 입시가 수시 전형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생부 위주의 전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선 고등학교의 학생부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7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 수시모집은 전체 모집인원의 69.9인 2만8,669명을 선발하고 정시모집

에선 30.1%를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수시모집이 0.2% 늘어난 수치다. 수시모집은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위주, 실기 위주, 기타로 나뉘는데 이중 2017학년도 학생부(교과) 전형은 39.7%, 학생부(종합) 전형은 20.3%를 차지한다. 2018학년도 학생부(교과) 전형이 40.0% 학생부(종합)전형이 23.0%로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등이 평가기준이 되기에 기록의 중요성은 그 만큼 클 수 밖에 없다.

/고민형 기자

##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